



# 한울림교회

## 방송설교

KRB

FM 87.7/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주일

6:30AM

단비 TV

토 9:00PM/월 11:00AM

Youtube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이들

전도사

권혁용, 김희원, 차유미

은퇴전도사 정주애

목사 김원재

주일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큐티나눔	박창완
교회소식	인도자
5월의기도	다같이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
찬양*	다같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1)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여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기도인도	김지경
봉헌*	다같이 내 주님 서신 발앞에 (찬214장 4절)
말씀교독	다같이 누가복음 1:46-56
특별찬양	사마임찬양대 예배
말씀선포	김원재 “행복을 찾는 당신에게”
찬양과결단*	다같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488)
파송의말씀	인도자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5월의 공동기도는 “**박미경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3. **큐티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4. 오늘(5/22) “**확신의삶**” 수업이 오후 1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의삶**’ 수업은 주일 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말씀의삶**’ 수업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다음 주일(5/29) 친교 직후 친교실에서 새예배당 입당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5월 1일부터 **친교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헌신할 분들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 오늘(5/22) 2부 예배 후 친교실에서 2022 YG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카페**를 엽니다. 한울림의 청소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 321 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보다 미국식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심층 질문을 통해 조사해보니, 그들 안에 우울감, 분노, 원망, 슬픔, 무기력 등의 행복하지 않은 부정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을 절대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수치로 매겨보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수치가 낮은 사람이 있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행복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아닌지 정확히 모른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행복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견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를 버느냐,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느냐”는 것에 대한 관심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Easterlin Paradox” 입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에 주장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8년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베스 스티븐슨 교수팀이 더 광범위한 실증조사를 통해서 이스털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무려 132개 나라의 50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용은 결론은 “부유한 나가 국민이 가난한 나라 국민보다 더 행복하다” 입니다. 그런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대학의 교수인 앵거스 디턴의 2010년 논문에 의해 “7만 5천불을 기점으로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스털린 역설이 맞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네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통념이 말하는 행복보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더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